

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
강·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
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
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원중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소개한 「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·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동 청원은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을 통해 서울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할 것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 요청하는 내용입니다.
- 2019년부터 시작한 강북횡단선 사업은 청량리역에서 목동역까지 25.72km에 달하는 경전철 계획으로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성북구를 비롯한 강북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사업입니다.
- 강북횡단선은 2020년 ‘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’ 확정에 따라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되었으나,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“2024년 제4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”의 경제적 타당성 위주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.

- 예비타당성 미통과 후 성북구 및 강북권 주민들은 서울시에 강북횡단선 재추진 및 “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(변경)”에 강북횡단선 원안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였고, 서울시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경제성의 평가 기준을 낮추고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항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.
- 이번 청원은 성북구민과 지역 단체 소속 26만 명이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을 염원하며 서명운동에 참여한 결과물입니다
- 이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 요구가 아니라, 강남과 강북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강북권을 자족가능한 미래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입니다.
- 본 의원은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 범 성북구민 대표회 26만 명의 청원 내용에 깊이 공감하여, ‘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(변경)’에 강북횡단선 원안을 반영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청원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바입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본 청원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,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